

## C\_M\_056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

### 1 개요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는 남원읍 신례리·하례리, 보목동, 효돈동, 토평동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조노깃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부로못님은 백록담에서 내려오다 예촌본향당신들과 바둑으로 서열을 정하여 아래쪽 보목동에 좌정하기로 하고, 신중부인이 돼지고기 금기를 어기는 부정을 저지른 데 대하여 살림을 가르기로 한 다음, 인근 여러 마을 사람을 돌보는 본향신으로 좌정하였다.

### 2 내용

부로못님이 아내 신중부인과 함께 백록담에서 내려오다 칠오름에 청기와집, 흑기와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부로못님은 신중부인을 토평 허씨 과수에게 맡겨두고 다시 칠오름으로 갔다. 그곳에는 예촌본향신인 할로영산백관님, 강남천자도원님, 칠오름도병서 셋이 바둑, 장기를 두고 있었다. 나이를 따져보니 조노기본향신인 부로못님이 위이고, 예촌본향신이 아래였다. 예촌본향신들이 바둑을 두어 위, 아래를 가리자고 하고 부로못님도 동의하였다. 이리 하여 바둑을 두는데, 예촌본향신들이 훈수를 두는 바람에 부로못님이 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예촌본향신은 위쪽 예촌에 좌정하고, 부로못님은 아래인 조노기로 내려가 좌정하였다.

예촌본향신 셋이 바둑을 두고 있는데 밀양박씨가 지나갔다. 예촌본향신은 밀양박씨에게 자신들이 좌정할 곳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밀양박씨가 알아보고 비야기된방이 좌정할 만한 곳이라고 하였다. 예촌본향신은 비야기된방에 좌정하기로 하고, 밀양박씨로 하여금 당을 맙는 심방이 되라고 하였다.

부로못님은 부인에게 가서 보니 날핏내가 났다. 그 까닭을 물으니 신중부인이 오줌 누러갔다가 돼지고기를 먹고픈 바람에 명주를 손에 감아 돼지 꽁무니로 손을 넣어 간회(肝膾)를 빼어먹었다고 대답하였다. 부로못님은 더러워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신중부인으로 하여금 토평 막동골에 좌정하여 사냥꾼에게 설레산적을 비롯한 육고기를 받아먹으라

고 하였다.

부로못님은 새금상따님아기를 첨으로 삼아 인근 여러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본향신으로 제향을 받았다.

### ③ 특징

서귀포시 보목동 소재 궤네깃당의 본풀이이다. 궤네깃당은 예촌(남원읍 신리례·하례리), 효돈동, 토평동 등 인근 여러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시는 본향당이다.

### ④ 핵심어

궤네깃당, 부로못님, 신중부인, 새금상따님아기, 밀양박씨, 조노기, 예촌본향신, 백록담, 칠오름, 할로영산백관, 강남전자도원, 칠오름도병서, 비야기된밧, 간회(肝膾), 보목동, 청기와집, 흑기와집

### ⑤ 원전 서지사항

예촌보목효돈토평본향당본풀이(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⑥ 관련 자료